

작품 내용

제 목	돌아올 빛
내 용	한번의 클릭, 한번의 복사, 한번의 의심. 한번인데 뭐 어때. 한 줄인데 뭐 어때. 무심코 넘기는 생각들. 저작자가 한 문장을 다듬고, 한 음을 붙잡으며 만들어낸 별은 새벽이 밝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에서 복사되고, 공유되며, 빛을 잃어간다. 그러니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주자. 허락을 구하고,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, 창작의 해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. 다시는 어둠에 삼켜지지 않도록.